

##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 개발\*

### 장 순 복\*\*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이 시대의 대학생이라 함은 법적,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대학입시를 위하여 모든 욕구가 억압되어 사춘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미숙한 사춘기적 청년계층이다. 대학생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친밀성 형성인 바 친밀성은 스스로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성격, 인격을 이해하고 상호 유희적으로 사회적인 능력을 연습하는 이성교제의 결과로 획득된다(박영숙, 장순복, 이은희, 신혜숙, 1998). 그러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년기에 진입한 대학생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인간관계 관점의 자아 중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대중매체 지배적 문화 속에서 성 유희적 관점에 치우친 상태로 성적혼돈을 경험하고 있다(김정은, 1999; 이영희 등, 1997). 그러므로 대학에 들어옴과 동시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무제한의 자유가 부여되었으나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이 획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하게 되므로 자신의 욕구와 이성적 통제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남명희, 1999; 임종권 외 1994; 장순복, 1998; 한경순,

함미영, 2000; Chang, 2000).

대학생들 중에 성교경험 분포는 남학생은 46-54.5%이고 여학생은 7.4-18.4%으로서 성교를 통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대표적인 세 편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인숙(1994)이 서울시 내 일개 남녀공학대학생 504명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전체학생의 31%가 성교경험을 하였는데, 성교경험자 중에 12.6%가 임신율, 10.5%가 성병을 앓았었고, 9.4%가 유산을 하였고, 22.9%가 강간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종권(1994) 등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조사한 미혼남성의 성 행태 분석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성 문제를 보면 남학생 1,103명중 36.3%가 성교경험이 있었는데 성교경험자 400명중에 10%가 상대방여성을 임신시킨 적이 있고, 성교경험자 400명중에 8.3%가 성병에 걸렸었고, 성병감염자의 88%가 성병감염당시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98년 전국 10개 대학 대학생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1,691명 중 남학생의 57%, 여학생의 11%가 성교경험이 있었는데, 성교경험자 중 남학생의 12%, 여학생의 36%가 임신을 경험했으며, 남학생의 23%와 여학생의 36%가 성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성교경험자 남학생 중 72%와 성교경험자 여학생 중 86%가 성병 감염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순복, 1998). 이러한 보고를 통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모성간호학 교실, 연세대학교 가정 간호연구소.  
계재 인정일 2002년 3월 7일

하여 대학생의 성 건강 문제는 점차 악화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전체 남자 대학생의 78%와 전체 여대생의 47%가 혼전 성관계에 수용적인 태도를(장순복, 1998)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이전에 원하지 않은 성교나 원치 않는 임신, 강간, 혹은 성병을 경험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의 대다수는 잠재적으로 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남명희, 1999; 임종권 외, 1994; 장순복, 1998; 한경순, 함미영, 2000). 이러한 대학생 성문제의 증가추세는 그들이 성 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보가 성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김정은, 1999). 성관계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로서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행동이다. 성교가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볼 때에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에서 1,049명중의 19.4%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교를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원하는 상태에서 성교한 경우를 포함하여 28%는 성교 후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38.4%는 후회스러웠다(임종권, 1994; 한경순, 함미영, 2000)고 보고하였다. 최근 전국의 1,712명 남녀 대학생 중에 또래 남학생들이 혼전 성교하는 이유에 대하여 남학생 응답자는 충동(49.3%), 사랑(36.4%), 쾌락(35.7%)의 순위로 답했으나 여학생 응답자는 충동(63.9%), 호기심(45.3%), 쾌락(34.3%)의 순위로 답하였다. 한편 또래 여학생들이 성교하는 이유에 관하여 남학생 응답자는 사랑(60.4%), 거절 못해서(31.0%), 좋아함으로(30.1%)로 답한 데 비하여 여학생 응답자는 사랑(74.6%), 거절 못해서(39.8%), 관계유지를 위해서(30.4%)의 순위로 답하였으므로(장순복, 1998) 여학생의 성교이유는 주로 사랑이고 남학생의 성교이유는 주로 충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또래 남학생들이 혼전 성교를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남학생들이 책임질까봐(57.7%), 임신이 두려워서(41.1%), 사회의 규범(39.4%)의 순위로 응답하였고, 여학생들은 책임질까봐(68.2%), 사회의 규범(44.2%), 임신이 두려워서(36.6%)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한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대체로 남학생들은 충동, 쾌락, 호기심의 이유로 자기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성교하고 여학생들은

사랑하는 이유와 거절 못하는 이유로 성교를 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성교하는 이유로서 십대 여학생의 36.8%가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어' 성교를 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대학생들은 성관계에서 자율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분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숙희, 2001; 장순복 외, 1998; 장순복, 유명숙, 이선경, 2001; 함영희, 1996). 따라서 왜 대학생들은 성관계 행동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라는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성이란 자신이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율적이려면 자신의 욕구나 충동에 적극적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적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Martin, 1992; Wolf, 1990; Mackenzie & Stoljar, 2000). 자율성은 간섭이 없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개인은 모든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행위를 시도해야 한다(허라금, 1995; Berger & Vivian, 2001)

우리는 현재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성교육을 시도해야 하는데 합의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료하지 못하다. 성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는 성교육이 후에 무슨 변화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맞물린다. 성교육은 일정한 교과와 내용을 인지적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성교육 이후에 원치 않는 성교, 원치 않는 임신, 성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실시되어야 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교육 효과 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성 관련 지식과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성교육 효과 측정도구로는 Sex Knowledge and Attitude Test(SKAT)가 가장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성 관련 지식과 태도에 집중되어 있어 인지적 수준과 심리적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성교육 전후에 그들의 성 관련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만을 도모하였다면 대학생들이 원치 않는 성교나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성병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행위능력의 잠재적인 요인은 성 관련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예방 의지가 생기고 성적 자부심이 향

상되고 성적 자율성의 획득이다(김계숙, 2000: 1999: WHO, 1995).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방적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적 자율성은 대학생 성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전후에 대상자들에게서 성교육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려면 대학생의 성교육 평가를 위하여 단순한 성 관련 지식, 태도, 행위수준 이상으로 이 요인들간에 강하게 상호 작용되어 행위결정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적 자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성교육 평가 도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대학생의 성교육 전후에 사용될 표준화된 성적자율성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대학생 성적 자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개발된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둘째,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성적 자율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 2. 도구개발 과정

도구개발 과정은 첫째, 성적자율성 개념도출 단계, 둘째, 예비문항작성 단계, 셋째, 신뢰도 타당도 검증단계로 진행되었다.

### 1) 성적자율성 개념도출 단계

성적자율성 개념도출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면담내용,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자가 보고된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성적자율성 개념도출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한 후에, 19-27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19명과 면담하여 얻어진 55개의 진술과 유사대학생 집단 435명으로부터 자가보고 받은 1,115개의 진술을 통합하여 총 1,170개의 진

술로부터 이를 성교육 전문가 3인이 내용 분류한 결과 35개의 속성으로 구분되었다.

### 2) 예비문항 작성 단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35개의 일차 문항을 성적 자율성 개념구성 내용으로부터 속성의 수준과 유사성에 따라 20개로 재분류한 후 작성하였다. 구성 타당도는 논리적 분석과 이론에 근거된 예측되는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구성 타당도를 위하여 면접대상과 유사한 대학생 15명과 성교육, 성 상담, 성 관련 연구자 3명에게 각 문항이 성적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내용 구성 타당도를 산출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문항의 타당성은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전혀 부적절하다 등으로 응답하게 하여 매우 적절하다나 적절하다고 응답된 문항 15개로 선정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를 산출하여 Content Validity Index가 80%이상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내용구성의 타당성 평가는 '아주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에 각각 5, 4, 3, 2, 1점으로 표기하였다. 어휘의 난이도와 보편적인 의사소통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대학생 각각 10명, 총 20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게 하여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여 일차적으로 15개 예비 문항의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는데 7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이다.

### 3) 신뢰도-타당도 검증 단계

문항검정을 위하여 A군(대학생:1632명), B군(집단비교를 위한 대학생 232명), C군(실험적 성교육전후의 216명)의 3개의 서로 다른 집단에게 조사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A, B, C 군의 자료수집은 자가보고방식으로 하였는데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15개였다. A 군의 자료수집은 1998년 11월 1일-12월 16일의 기간에 남녀 대학생 1,6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체계적 추출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성을 위하여 7개의 4년제 대학, 6개의 전문대학 등 전국 10개의 도시로부터 13개의 대학의 재학생 2,20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 1,632명(74.2% 회수율)이었다. B군은 서울시내 일개 대학의 330명

(70.3% 회수율)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 23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 6월 7일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으로부터 자가보고 방식으로 하였다. C 군의 자료수집기간은 312명으로부터 수집된 216명(69.3%회수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0년 12월 8일 실험적 성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번에 하면서 전후의 자신의 성적자율성을 비교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교육 시작 시점에는 자신의 성적자율성이 상당수준인 것으로 오해하다가 성교육이 끝난 후에 자신의 성적자율성의 수준이 낮았음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사실이 상황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2) 자료분석 방법

① 타당도 검정을 위한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0.0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문항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위해 varimax 회전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② 신뢰도 검정을 위한 분석

성적자율성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A, B, C 세 집단으로부터 조사된 결과에 대한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 대학생의 특성을 A, B, C군별로 보면 각각 여학생은 64.3 %, 37.8%, 37.00%, 평균연령은 각각 20.9세, 22.3세, 21.0세, 의료관련 학생은 각각 40.8%, 3.5%, 4.2%, 1-2학년이 56.9%, 24.3%, 37.5%, 주거 형태는 자택 거주자가 각각 63.6%, 60.8%, 50.4% , 과거 성교육 경험율은 각각 66.6%, 69.2%, 66.7%, 성교경험은 각각 18.3%, 42.7%, 35.6%였다(표 1).

2. 성적자율성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1) 도구의 타당도

문항 분석을 위하여 각 문항의 전체문항에 대한 상관 계수를 구하였으며 .30이하로 나타난 문항 1과 문항 10을 제외하여 총 13개의 문항이 남게 되었다. 13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인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제 1요인에 10개의 문항과 제 2요인에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성적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Group A	Group B	Group C
Criteria		(n=1632) No(%)	(n=232) No(%)	(n=216) No(%)
Sex	male	583 (35.7)	143 (62.2)	136 (63.0)
	female	1049 (64.3)	87 (37.8)	80 (37.0)
	Total	1632	230	216
Age	mean age(yrs)	20.96±2.31	22.33±2.56	21.08±2.34
Major	medicine	666 (40.8)	8 (3.5)	9 (4.2)
	others	966 (59.2)	222 (96.5)	207 (95.8)
Grade	freshman	408 (25.0)	1 (0.4)	9 (4.2)
	sophomore	521 (31.9)	55 (23.9)	72 (33.3)
	junior	367 (22.5)	65 (28.3)	66 (30.6)
	senior	336 (20.6)	109 (47.4)	69 (31.9)
Type of residence	private residence	1025 (63.6)	138 (60.8)	110 (50.4)
	others	587 (36.4)	89 (39.2)	104 (48.6)
Marriage	marriage	15 (0.9)	2 (0.7)	1 (0.5)
	no marriage	1611 (98.7)	223 (97.4)	214 (99.1)
Past experience of Sex education	co-habit	6 (0.4)	4 (1.7)	1 (0.5)
	yes	1077 (66.6)	157 (69.2)	142 (66.7)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	539 (33.4)	70 (30.8)	71 (33.3)
	yes	276 (18.3)	93 (42.7)	68 (35.6)
Sexual intercourse	yes	276 (18.3)	93 (42.7)	68 (35.6)
	no	1235 (81.7)	125 (57.3)	123 (64.4)

except no response

〈표 2〉 Difference of sexual autonom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Objects	Sex	Number	Mean±SD	t	P
Sex	Group A (n=1632)	male	570	53.71±8.91	-5.933	.000*
		female	1033	56.10±6.99		
	Group B (n=232)	male	142	54.62±6.97	-1.992	.048*
		female	86	56.41±5.84		
	Group C(pre) (n=216)	male	132	51.69±8.34	0.996	.321
		female	78	50.46±9.12		
Group C(post) (n=216)	male	132	58.40±5.16	-1.89	.060	
	female	79	59.77±5.07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Group A (n=1632)	yes	269	55.08±8.07	0.526	.599
		no	1215	55.35±7.69		
	Group B (n=232)	yes	92	55.05±6.60	0.341	.733
		no	125	55.37±6.67		
	Group C(pre) (n=216)	yes	66	51.85±8.39	-0.780	.436
		no	119	50.82±8.66		
Group C(post) (n=216)	yes	66	58.50±5.14	0.704	.483	
	no	120	59.05±5.08			
Past Experience of Sex Education	Group A (n=1632)	yes	1059	55.40±7.43	-0.625	.532
		no	529	55.14±8.25		
Education	Group B (n=232)	yes	156	55.60±7.27	-1.286	.200
		no	69	54.28±6.94		

\*p < .05

자율성 도구 13 문항의 구성 타당도 확인을 위해 주요인 분석을 Rotated Varimax analysis 한 결과 Eigen value 값이 1.0이상인 요인이 A군과 B 군의 경우 2개로 분리되었다. A군의 자료로부터 나온 요인의 고유값은 제 1요인이 3.982, 제 2요인이 2.265이었으며, 설명력은 제 1요인은 30.63%, 제 2요인은 17.42%로서 두 요인을 합하여 48.05%이었다. B군의 경우 요인의 고유값은 제 1요인은 3.154, 제 2요인은 2.866이었으며 설명력은 제 1 요인이 28.67%, 제 2 요인이 26.05%로서 두 요인이 합하여 54.73%를 설명하고 있었다. 즉, 제 1요인은 각각 30.63%, 28.67%이었으며 제 2요인은 17.42%, 26.05%로서 A, B군의 제 1요인의 값이 각각 28.67~30.63%의 범위 값을 나타냈다(표 2, 3).

2) 도구의 신뢰도

성적자율성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집단

에 걸쳐 분석된 성적자율성 도구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Alpha 계수는 A군 1,632명의 자료에서는 .860이었고, B군의 232명은 .874이었으며, C군인 216명의 경우 실험적 성교육 전후 각각 .833과 .765이었다.

3.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를 알기 위하여 성별, 성교경험, 과거 성교육 여부와 실험적 성교육 전후의 성적자율성 점수를 t-test한 결과 유의수준 p < .05로 보았을 때 A 군(-5.933, p=.000)과 B군 (-1.992, p= .048)의 경우에는 모두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 점수가 각각 56.10점, 56.41점으로서 남학생의 53.71점, 74.6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C군은 실험적 성교육 전이나 후에 모두 성별 차이가 없

〈표 3〉 Difference of sexual autonomy between the pre/post group of sex education

	pre Group (Mean±SD)	post Group (Mean±SD)	df	t	p
Male	51.69±8.34	58.40±5.16	131	-15.322	.000*
Female	50.46±9.12	59.72±5.08	77	-11.152	.000*
Total	51.23±8.63	58.89±5.16	209	-10.841	.000*

\*p < .05

〈표 4〉 Factor Analysis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Q	Item	factor1	factor2
	q6 I can use contraceptives when I have intercourse.	.725	
	q7 I can use preventive methods when I have intercourse	.723	
조	q5 I can decide by myself whether I have intercourse or not.	.719	
	q4 I can reject for having unwanted intercourse	.695	
	q8 I can control of my sexual desire.	.622	
	q9 I do care the negative outcome of my sex partner.	.560	
	q15 I can cope with sexual violence.	.555	
결	q14 I can express my unpleasant feeling when I confront sexual violence.	.524	
	q2 I can speak out for sex related matter equally with my sex partner.	.487	
	q3 I can speak out clearly for having intercourse	.470	
대	q11 I can decide for abortion or giving a birth for unwed pregnancy.		.732
	q12 I do care by myself for STDs infection .		.705
응	q13 I do prevention for repeated infection of STDs.		.638

〈표 5〉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s for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actors	Eigen 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Group A (n=1632)	factor 1	3.982	30.63	30.63
	factor 2	2.265	17.42	48.05
Group B (n=232)	factor 1	3.154	28.67	28.67
	factor 2	2.866	26.05	54.73

었다. 성교 경험 여부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점수는 세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A, B군의 과거 성교육 경험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점수에도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적 성교육 전후의 성적 자율성 점수는 남학생( $t=-15.322, p=.000$ )과 여학생( $t=-11.152, p=.000$ )이 각각 증가되었고, 전체 학생의 성적자율성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t=-10.841, p=.000$ ).  
〈표 5〉

4. 요인분석

성적자율성 측정도구의 구성 요소를 알기 위하여 주성분인자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은 조절로 명명하고,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2는 대응으로 명명하였다(표 6).

〈표 6〉 Corrected item to total correlation and reliability

Ques-tion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2	50.948	53.085	.552	.848
3	51.398	52.023	.439	.857
4	50.879	52.044	.584	.846
5	51.014	51.376	.595	.845
6	50.975	52.121	.512	.851
7	51.006	51.508	.572	.847
8	51.017	51.999	.598	.846
9	50.960	52.078	.625	.844
11	51.025	54.335	.370	.860
12	51.259	54.078	.356	.861
13	50.625	53.582	.628	.846
14	51.165	52.106	.537	.849
15	50.756	53.488	.564	.848

## IV. 논 의

### 1. 도구의 신뢰도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구한 Cronbach's  $\alpha$  계수의 범위는 A군(1632명)은 .860이었고, B군(232명)은 .874, C군(216)6명의 경우에는 실험적 성교육 전후에는 각각 .833 과 .765로서 범위는 .765~.874 로 높게 나타나 성적 자율성 측정 도구로서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나타내는 상당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구의 안정성이나 동등성 검증이 되지 않아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2. 도구의 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문항 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다. 문항분석은 사전 조사와 최종 조사를 통해 개별 문항과 전체 문항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특정 문항 제외 시 Cronbach's  $\alpha$  값을 고려하여 분별력이 낮은 문항은 제외시켰으므로 성적자율성 측정 도구로서의 타당도를 높여야 하는 노력을 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2개였다. 사실상 실험적 성교육 후의 216명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갖고 요인 분석한 결과에서는 요인이 3개로 분리되었으나 제 3 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낮아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자료에서 분석된 2개 요인으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요인 1의 명명이 쉽지 않은 만큼 복합적인 속성을 나타내므로 추후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제 1 요인에 포함되는 성교 시 피임사용 능력, 성교 시 예방 조치 능력, 성교 결정 능력, 성교 거부 능력, 성 욕구 조절, 불쾌함 표현 능력, 성 파트너와 대등한 의사소통, 명백한 의사소통 등의 문항들을 '조절'로 명명하고, 원치 않는 임신 시 출산이나 유산의 결정 능력, 성병 관리 능력, 성병 재발 방지 등을 '대응'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두개의 요인분리를 통하여 성적 자율성도구는 조절과 대응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명과 요인의 개수가 최적일수 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성적 자율성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13 문항을 통한 총 설명력이 48.05%로 나타난 바 이는 장순복(1997)의 성 만족 측정도구 16개로 구성된 전체문항의 설명력이 49.2%이고, 강경아(1999)의 암환자 고통 측정 도구 56문항의 7개 요인으로 56%를 설명

하는데 비하여 설명력의 절대값이 낮으므로 포괄적인 도구보강의 필요성이 시사되지만 문항 수에 비례한다면 설명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가능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응답하는데 소요시간이 5분 이내 였다는 점에서 측정도구의 효율성과 속도감이 있다고 보고, 문항이 13개라는 점에서 간결성이 있으며, 남녀학생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과 실험적 성교육 이후에 성적자율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낸 점으로 보아 민감성이 있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분석 근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확률적 표집은 아니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점과 전체 대상자수가 2천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상당 수준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

### 3. 성별과 자율성

본 자료에서는 A군의 1,652명, B군의 332명, C군의 216명의 각각에서 여성의 성적 자율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대생들의 성적자율성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높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높은 군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비해 성관계 하기, 성상대자의 성병에 대해 질문하기, 콘돔 사용 등에 대해 성별로 차이가 있었고(Yesmont, 1992), Werner-Wilson(1998)이 조사한 청소년의 성 행동도 1,587 명의 고등학생과 1,372 명의 부모로부터 조사된 바 남자가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 자기통제적 자부심, 종교 등이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점과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1998)과 이상복(2001)이 보고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보다 고정적인 성역할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보고와 여학생들은 가족 요인의 영향을 받고(Helen, 1990) 남학생들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성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한다는(장필화와 조주형, 1992) 보고 등을 고려할 때에 여학생의 자율성은 한국처럼 가족의 영향을 받는 문화권에서 성 행동에 대하여 딸들에게는 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몸을 소중히 보호할 것과 혼전성교를 피하도록 권면하는 부모들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 도구로 앞으로의 성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예측력이 있거나(Guyatt, Walter & Norman (1987) 과거의 성 문제가 성적 자율성 부족 때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Wehr & Kaufman, 1987), 그러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단지 성별 차이에서

여학생 군이 남학생 군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성교육 상황에서는 남학생들의 성적자율성 향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Lawrence, 1993). 성교 여부에 따른 성적 자율성 정도는 A, B, C 군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는 대상자들의 성교 경험연령, 성교상황, 원치 않는 상황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적 자율성은 조사 당시의 수준이지만 성교 경험시기는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성교 경험과 현재의 성적 자율성과의 관계는 설명할 수 없고 현재의 성적자율성과 앞으로의 성 문제 예방정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Ian & Claine, 1987; Kelly, Lawrence, Bettes, 1990).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측정된 성적 자율성 정도에 따라 추후의 원치 않는 임신, 성병, 유산 등의 경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자료는 전향적으로 종적 연구를 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적 자율성 측정 도구는 현재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정도를 구분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상당한 수준의 도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적자율성 측정도구개발을 위하여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심층면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및 문헌고찰 내용을 분석한 후에 문항을 구성하여 도구 정련의 과정을 거쳐 1,632명, 232명, 216명의 세 집단으로부터 자기보고형식으로 수집된 15개 문항에 나타난 결과를 문항분석, 내적 일관성 계수, 요인분석 등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13개의 문항으로 2개의 요인으로 분리하여 조절과 대응으로 명명하였다. 1,632명의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60 이었고, 두 개의 요인으로 성적자율성은 48.05%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본 도구는 효율성, 민감성, 속도감, 및 간결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도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VI. 연구의 제한점

성적자율성 측정 도구가 유사개념 도구와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공통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렴도나 판별 타당도를 결정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다.

### VII. 제 언

1. 앞으로 성적 자율성 정도를 사정한 후 원치 않는 성교, 임신, 성병, 인공유산 등의 성 문제와 관련 종적 연구를 전향적으로 실시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제안한다.
2. 성적자율개념과 유사한 성적자유 개념과 구분 짓는 연구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강경아 (1999). 암환자의 고통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6), 1365-78.

김계숙 (2000). 여성의 성건강 개념개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은 (1999).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2), 232-249

김주연 (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1), 239-251.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8).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교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1):51-63

박영숙, 장순복, 이은희, 신혜숙 (1999). *현대여성의 건강생활*. 현문사, 81-98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복 (2001). 한국인의 성 의식과 성문화. *성교육 및 성 상담 전문가 교육과정 IV 자료집*, 여성건강간호학회, 16-20.

이숙희 (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종권, 김혜련, 장동현, 김주형, 김한경 (1994). *미혼 남성의 성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 p.80-85
- 장순복 (1997). 여성의 성 만족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7(4), 753-764.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 (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 경험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1(5), 921-931.
- 장순복, 유명숙, 이선경 (2001). 십대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과 자기주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3), 305-316.
-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서정애, 오윤경 (1998). *대학생의 성 행태 조사연구*. 한국 성문화연구소, p.42-55.
- 조영미 (1999). 한국페미니즘 성 연구의 현황과 분석. *섹슈얼리티강의*. 서울:동녘, 11-43.
- 장필화, 조형 (1992). 한국의 성문화, -남성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8, 127-166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함영희 (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 서울특별시부녀복지연합회. 제1회여성복지 세미나, 28-31.
- 허라금 (1995). 여성주의 자율성 개념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 11집*, 7-24.
- Berger, Vivian (2001). Defending sexual autonomy. *Criminal Justice Ethics*. New York. 20(1):45-52.
- Chang, S. B. (2001). Sexual Culture and Contemporary Youth in Korea, -darkness and light-, *Journal of Asian Sexology*, published by Asian Federation for Sexology. 2, 130-133
- Guyatt, G., Walter, S., Norman, G. (1987). Measuring changeover time : assess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ve instruments. *J Chron Dis*, 40, 171-178.
- Helen, R. (1990). *Women's Health Counts*. New York: Chapman and Hall. pp.12-35
- Ian, M., & Claire, N. (1987).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9-10.
- Kelly, J. A., Lawrence, J. S., Bettes, R. (1990). A skills-training group intervention model to assist persons in reducing risk behaviours for HIV infection. *AIDS Education & Prevention*, 2(1), 24-35.
- Lawrence, J. S. (1993). African-American adolescents' knowledge, health-related attitudes, sexual behavior, and contraceptive decisions :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HIV infectio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1(1), 104-112.
- Mackenzie, C., & Stoljar, N. (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3-32.
- Martin, Emily (1989). *The woman in the Body*. Boston : Beacon Press. pp.69-71
- Wehr, S. H., Kaufman, M. E. (1987).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performance in highly anxious adolescents. *Adolescence*, 22(85), 195-205.
- Werner-Wilson, R. J. (1998).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 attitudes :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dolescence*, 33(131), 519-531.
- WHO (1995). *Teaching Modules for Basic Education in Human Sexuality*. HIV/AIDS reference library for nurses vol 7. Manila 5-14.
- Wolf, S. (1990). *Freedom within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3-22.
- Yesmont, G. A. (1992). The relationship of assertiveness to college students' safer sex behavior. *Adolescence*, 27(106), 253-272.

-abstract-

##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Chang, Soon Bok\*\**

Little is known about sexual autonomy in the light of human sexual health or sexual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sexual autonomy by developing a scale to measure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The measure wa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human beings as having autonomy. A methodological developmental design was used. The study was done in three steps and included concept development through content 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individual interviews using open-ended questions with 19 college students, item analysis of data from self report questionnaires for item to total correlation, content validity index by professionals and college students, and factor analysi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ree groups participated in testing the measurement scale: Group A in 1998, a nationwide convenience sample of college students (n=1,163), Group B, college students in 1999 (n=233), and Group C, college students in 2000 who responded to the measurement scale before and after a sex education program (n=216). A serie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validity.

For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s,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reliability (test-retest), item to total analysis, content validity, factor analysis for construct validity and t-test for

mean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sexual coitus, previous sex education, and pre-post experiment sex education were used with SPSS 10.0.

### Results:

1. Two stable factors were extracted and these contributed 48.05% of the variance in the total score. All 13 items loaded above .40 on each factor.
2. Factor I with 10 items was named 'control' and factor II with 3 items and was named 'coping'.
3. Differences in sexual autonomy scores for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sexual autonomy in the post sex education group ( $t=-10.841, p=.000$ ),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had previous sex education. Female college students had higher sexual autonomy scores than male college students in A or B group ( $t=-5.933, p=.000/ t=-1.992, p=.048$ ).
4. Cronbach's  $\alpha$  was .8603 for the total 13 items with 1,632 college students, .8739 with 232 students, .8333~.7647 with pre-post sex education with 216 students.

This measurement was found to have a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measur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Therefore, the author recommends that it be used to measure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utonomy and sexual behavior.

key words : Sexual autonomy, Measurement, College stud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 Yonsei University, Reseach Institute for Home Health Care